

책으로 살피는 결혼의 진정한 뜻

양성평등 입각한 올바른 가치관형성 지향

결혼은 당사자인 개인에게든 사회적으로든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시작인 동시에 당사자에게 제2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특성이 심화되는 현대에 이룰수록 결혼은 상품화되고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결혼이 세력구축의 수단이 되어 '혼벌'이 형성 되는가 하면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혼수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식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최근들어 결혼을 소재로 출판된 몇종의 책은 이같이 결혼양태의 심각성이나 변화된 의식을 반증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기왕에 나왔던 관련서적들이 혼인의 동기나 배우자 선택의 조건 등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보다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결혼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또하나의문화) 「결혼에세이」(민맥) 「여자는 왜?」(동녘) 「결혼과 가족관계」(기린원) 「재미있는 결혼심리」(기린원) 「결혼의 역사」(신학문사) 등은 여성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남성의 가부장제적 관념으로 대표되는 결혼심리의 허구를 과감히 벗겨내고 「평등한 부부」에 지향의 초점을 맞춘 글들에서부터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빚어지는 결혼의 상품화를 사회구조적으로 밝혀보인 연구논문에 이르기까지 기왕의 '낭만적 접근'을 탈피, 충실한 함량을 담아내고 있다.

우선, 「결혼과 가족관계」(최신덕) 「재미있



는 결혼심리」(코쿠부 야스타카/ 최광선) 등이 결혼에 임하는 자세, 가정안에서의 역할구조 등 일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한 것이라면 「결혼에세이」는 여성의전화 상담간사로 있는 박수선씨가 여성운동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결혼의 모범들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결혼을 둘러싼 조건과 신화들에 대한 문제제기 및 국적불명의 결혼문화를 극복하고 인격적 만남으로서의 결혼준비, 함께 만드는 부부문화, 직장생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양성평등의 대안문화를 지향하며 현재 6권까지 나와 있는 무크 '또하나의문화'는 매호 부분적으로 결혼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근간 「주부, 그 막힘과 트임」에서는 상반된 가

족문화 속에 자라온 두 남녀가 매사에 서로 틀린 기질을 발견하고 놀라고 상처받지만 하나씩 이해하고 조화로운 부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결혼'과 폭력남편으로부터 결혼 10년만에 홀로서기를 선언, 자립하여 탁아소를 운영하게 된 한 여성의 '결혼보다 나은 이혼' 등 결과가 틀린 두 사례를 함께 싣고 있는데, 당사자의 입으로 결혼현실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앞의 이론서에 보완적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결혼의 기원에서부터 오늘날의 결혼양태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형태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결혼의 역사」(A. 브론츠키)와 이를 여성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한국적상황에서 해석해 내린 「여자는 왜?」(서진영) 등은 결혼과 여성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줄기를 잡아주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을 요하는 책이 여성 한국사연구회 회원들의 결혼을 주제로 연구발표한 모음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결혼의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면서 요즘의 결혼의 상품화현상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혼인에 대한 현실적 문제의 심각함을 공감, 학문적 이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 됨"에 따라 시작하게 되었다고 연구회측은 밝히고 있는데, 혼인에 대한 역사적 계층적 변화를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

도시저소득층, 서울근교농촌, 도시중간계층의 계층별 혼인의 양태 및 관행 등을 사례조사를 통해 밝혀보고 있는데, 혼인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유산자층, 여성을 소비의 노예로 비인간화시키는 중산층, 경제적 이유로 불안정한 동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등으로 결과를 분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향이 혼인과 가족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모순을 낳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아직 혼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진 못하나 이같은 기초조사는 건전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결혼을 위한 혼인민주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는 여성단체연합 이효재(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회장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입각한 올바른 결혼가치관의 형성과 바람직한 결혼관행이 빨리 정착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혜옥 기자

“한솔과 손잡으시면 편집자 10명을 얻는 셈입니다!”

◆ 제작 대행 : ① 일손이 달리신다구요? 대신 뛰어 드리겠습니다.
② 원고가 있으시다구요?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CONVERSION (변환) : PC로 입력한 디스켓만 가져오시면 편집상태인 교정 → 인화 → 필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원고 은행 : 출판 원고접수, 출판 원고 지원해 드립니다.

한솔기획

서울시 중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
TEL : 735-4997 FAX : 739-8791

